

드림꽃편지 669

2024.10.23.상강  
<https://cyw.pe.kr>

## 차별금지법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문학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한 것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더군요.

노벨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스웨덴 한림원은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작가의 소설은 항상 시대의 강도 만난 자 편에 서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인 셈입니다. 그 자리는 기독교인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나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에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함'(헌법 제3조 제1항 제1호)이라고 헌법에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차별이라는 강도를 만나 길가에 널부러져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두손 들고 환영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성애자들'까지 차별금지의 대상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개인의 '성적 지향'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범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들은 대도시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같은 것을 열면서 성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며 사회를 문란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지 '강도 만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순리인 정상적인 남녀관계를 파괴하는 '강도'입니다.

♥ '차별금지'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는 최용우 올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어디에 있지?



그런 기도는 없는데...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2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면  
간절한 마음으로 골방에서 해야 합니다.

아하!  
사람들이 들으라고 소리 지르며 하는 기도는  
사탄 마귀가 듣고 춤추며 좋아하겠구나.

Byungsoo Cho 목사님 폐북에서

## 내 속에 거하는 죄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원치 않는다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슨 일을 원치 않으면서 한다는 사실이  
그것을 금지한 율법의 정당성을 반증(反證)한다.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을 하는 까닭은  
스스로 내 몸을 내가 장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로 하여금 내 사령탑 노릇을 하도록  
내 몸을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 회개60 남탓만

아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얻고 가정방문 요양보호를 한다기에 할 수 없이 중고 차 모닝을 샀습니다. 운전면허를 따지는 오래 되었지만 아직 운전이 미숙합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고는 하지만 늘 걱정과 염려, 그리고 불안하기만 하였습니다. 자주 말하면 잔소리로 들릴까 봐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안전 운전하세요.”

“빨리 급하게 운전하지 말고 천천히 살피면서 하세요.”

“스쿨존에서는 정말 조심하세요.”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에 더 걱정이 됩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마디 합니다.

“왜 카톡에 답이 없어?”

“지도 안 하면서.....”

그리고 보니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들이 저에 대하여 궁금하여 카톡이 오면 그냥 답장을 안 하여 줄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그러했으면서 남의 탓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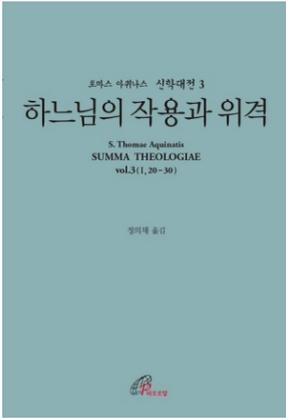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셤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세요?”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저, 괜찮은 것 같네요.

# 하나님의 작용과 위격



토마스 아퀴나스<신학대전>1부 제3권 (20-30)  
S.T Aquinatis 지음/정의채 옮김  
500쪽 34,000원 바오로딸 1994, 2023

- 20.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 21.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에 대하여
- 22.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중략)
- 29.하나님의 위격들에 대하여
- 30.하나님 안에서의 위격들의 복수성에 대하여

## 20.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 ①하나님 안에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은 정념(격정)이며, 사랑과 기쁨과 쾌락은 감각적 욕구가 인간의 심장에 작용하는 상태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인간의 심장과 같은 감각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 이시다’(요일4:16)는 말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작용이 인간에게 사랑으로 느껴진다는 말이지, 하나님 안에 사랑의 감각이 존재한다는 말은 아니다.
- ②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자기 밖으로 나가 어떤 의미로 그가 사랑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자기 밖에 놓여 있는 어떤 대상으로 자기의 감정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과 밖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의미로 사랑이란 ‘욕구’인데 하나님은 비이성적 피조물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 ③하나님은 모든 것을 균등하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욕구적인 사랑과 같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태양처럼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다. 태양 빛을 받는 것은 받는 사람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른 것이지만 태양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 ④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더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를 항상 더 사랑하신다.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

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 21.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에 대하여

①하나님 안에는 정의가 없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본질이다. 그런데 본질을 정의라고 하지는 않는다. 정(正)은 본질에 관련된 것이지만 의(義)는 행위에 관련된다. 고로 ‘하나님 안에 정의가 있다’라고 할 수 없다.

②하나님의 정의는 진리가 아니다. 안셀름은 “정의는 인간의 의지 안에 있는 것이며 그것은 ‘의지의 올바름’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는 정의와 다른 어떤 덕행이다”라고 했다. 진리는 정의의 개념(본질)에 속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정의는 진리이다’라는 말도 성립하지 않는다.

③자비는 하나님께 적합하지 않다. 그 이유는 자비는 슬픔의 일종이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슬픔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는) 자비도 없다고 할 수 있다.

④하나님의 모든 작업에 자비와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실 것입니다.’(약2:13)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일’에 무조건 자비와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다.

## 22.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①섭리는 하나님께 적합하지 않다. 키케로는 ‘섭리는 지혜의 일부이다’라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는 숙고하여 좋은 의견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의견(자문)을 받아야 할 어떤 의문도 갖고 계시지 않으시다.

②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어서 스스로의 결정으로 살게 하셨다. 그래서 특히 죄인들은 이 세상에서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욕망을 따라 그들을 버려두셨다.’(시80:13)고 하신다. 그러므로 ‘오 마이 갓,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도 무심하지...’ 이런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말은 옳지 않다.

③하나님은 모든 것을 직접 섭리하시지는 않으신다. 어떤 왕에게 신하와 백성들이 있다면 그 왕의 통치는 그들을 잘 살게 하든지 고통을 받게 하든지 그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것은 왕의 섭리에 속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신하와 백성들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④하나님의 섭리는 섭리 된 사물들에 필연성을 부여한다. 모든 결과는 어떤 원인이 과거에나 현재에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선재(先在)한다. 결과는 이런 원인을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헛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23. 예정(豫定)에 대하여

- ①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지(豫知)하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豫定)하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나님은 인간이 무엇을 선택할지까지 예정해 놓으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자유의지라 할 수 없다.
- ②예정은 예정된 자 안에 어떤 것을 조정(措定)하는(놓아주는) 것이다. 모든 능동적인 행위는 그 자체로 수동을 예상한다. 그런데 예정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능동적인 행위라면 예정은 예정된 자들에게는 수동이어야 한다.
- ③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배척하지 않으신다. 아무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배척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이 만든 것들 중 어느 것도 미워하지 않으신다.(호13:9)
- ④예정된 자들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 선택되지는 않는다. 태양은 모든 물체에 빛을 쬐는다.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예정하셨다.(딤후2:4) 그런데 모든 물체가 태양 빛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예정한 자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면 그를 선택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선행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원하시지만, 스스로의 선택으로 구원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 붙잡지는 않으신다.
- ⑤공적(功績)들의 예지(豫知)가 예정의 원인이다. 공적이란 노력과 수고를 들여 이루어 낸 결과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공적을 미리 아시는 것을 예지하신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예정하신 것이다.
- ⑥예정은 확실하지 않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계3:11) 예정의 결과인 면류관을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은 예정이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 ⑦예정된 사람들의 수(數)는 확정적이다. 그러나 형상적으로는 확정적이지만 질료적으로는 확정적이지 아니다. 예를 들어 100사람, 1000사람이라는 숫자는 확정적이지만 그 숫자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사람이었다가 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원래는 저 사람이 아니었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마11:12)이라 천국을 쟁취한 사람이 숫자 안에 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 ⑧예정은 성인들의 기도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시간적인 것이 영원한 것을 앞설 수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이미 흘러 가버린 물을 흘러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 24. 생명의 책에 대하여

- ①생명의 책은 예정과 같은 것이 아니다. 생명의 책은 '구약과 신약'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힘이다.’ 하나님의 힘은 ‘예정’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의 속성에 속하는 것이다.

②생명의 책은 다만 예정된 자들의 영광의 생명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생명의 책은 생명에 대한 지식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통해 다른 모든 생명을 인식하신다.

③어느 누구도 생명의 책에서 말소되지 않는다. 어거스틴은 “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예지가 생명책이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생명책은 불가변적(不可變的)이기 때문에 말소 불가능 상태이다.

## 25.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①하나님 안에는 능력이 없다. 그 이유는 능력이란 ‘작용의 근원(원리)’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용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는 우유(偶有)혹은 우유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력의 개념은 하나님께 적합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안에는 능력이 있다거나 없다고 말할 수 없다.

②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무제한 한(무한한) 것은 불완전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거나 유한하다고 할 수 없다.

③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시다. 그 이유는 전능(全能)이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능동태(움직임)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움직이는 물체가 아니고 영이시기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전능’이란 상위(上位)의 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자체가 최상위(最上位)이며 그 위가 없기에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④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흐름이 없으시다. 과거도 현재이고 미래도 현재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나누어져 있지 않고 그냥 합쳐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없었던 것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시다.

⑤하나님은 그가 행한 것 이외의 것들은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스스로가 행할 것을 미리 알고 미리 질서 지어 미리 배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할 이유가 없으시다.

⑥하나님은 그가 행하는 것들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장 큰 능력으로 가장 좋은 것을 이미 하시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 26. 하나님의 지복(至福, 행복)에 대하여

①지복(至福)은 하나님께 적합하지 않다. 그 이유는 지복이나 행복은 ‘덕의 보상’이

다. 그런데 하나님은 덕을 행하여 누구에게 보상을 받는 분이 아니다.

②하나님이 지복(至福)하다는 것은 지성에 의해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지복은 존재에 관한 것이고 존재는 본질에 따른 것인데 하나님은 '본질'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복은 '지성'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③하나님은 각기 지복한 자의 지복이다. 하나님은 '최고선'이다. 최고선이라는 것이 지복의 개념(성격)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복은 하나님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각기 지복한 자의 지복은 오직 하나님 뿐이다.

④ 하나님의 지복은 모든 지복을 포함하지 않는다. 지복(행복)도 어떤 것들은 거짓이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어떤 거짓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복은 모든 지복(행복)을 포함하지 않는다.

## 27. 하나님의 위격(位格)들의 발출(發出)에 대하여

①신적(神的)인 것들 안에, 즉 하나님 안에는 어떤 발출(출발, 시작, 기원)도 없다. 그 이유는 발출은 밖을 향하는 운동인데 하나님 안에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 또 외부적인 것도 없다. 그러므로 발출도 없다.

②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발출을 출생이라고 할 수 없다. 출생이란 비존재에서 존재로의 변화이며 부패, 소멸에 반대된다. 그리고 이 둘의 출생과 소멸의 기체는 질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체가 아니므로 하나님께는 출생이 있을 수 없다.

③하나님 안에 말씀의 출생 이외의 다른 발출은 존재하지 않는다. 발출은 발출을 낳기 때문에 발출은 무한히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부적합하다.

④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의 발출은 출생이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양태로 발출하는 것은 본성의 유사성 안에서의 발출이기 때문에 출생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하나님 안에 둘 이상의 여러 발출 들이 있다. 하나님께 지식과 의지가 귀속되는 것과 같이 능력도 귀속된다. 그러므로 지성과 의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안에 여러 가지 발출들이 있다고 인정된다.

## 28.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들에 대하여

①하나님 안에는 어떤 실재적 관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삼위일체는 같은 것에 대한 관계와 비슷한데, 이는 개념상의 관계일 뿐, 실제로 하나님이 세 가지로 나뉘는 것은 아니다. 고로 하나님 안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②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는 하나님의 본질과 같은 것은 아니다. 다른 어떤 것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본질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최고로 절대적이고 그 자체로 자립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③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관계들은 실재적으로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하나이고 같은 것에 동일한 것들은 그 어떤 것이든 다 같은 것이다.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본질과 같은 것이다.

④하나님 안에는 네 가지 실재적 관계들, 즉 부성(父性)과 자성(子性)과 영기발(靈氣發)과 발출(發出)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 29. 하나님의 위격들에 대하여

①위격의 정의 -보에티우스가 '위격(인격)은 이성적 본성의 개별적 실체이다'라고 한 위격의 정의는 적합하지 않다. 그 이유는 어떠한 개별적인 것을 정의할 수는 없다. 그런데 위격(페르소나)는 개별적인 어떤 것을 의미한다.

②위격은 '자주체(自主體)와 '자립체(自立體)'의 '본질'이 같다. 우리가 하나님 안의 세 위격을 말하는 것처럼 세 자립체를 말한다. 이것은 위격이 자립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③위격(인격)의 명칭은 하나님께 쓰일 수 없다. 초실체적인 숨겨진 신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표명된 것들 외에는 보편적으로 감히 말하거나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한 위격의 명칭이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표명되지 않으므로 위격(인격)의 명칭을 하나님께 사용하면 안 된다.

④'위격'이라는 이 명칭은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실체를 표시하는 것이다.

## 30. 하나님 안에서의 위격들의 복수성에 대하여

①하나님 안에는 복수의 위격(인격)은 없다. 위격은 이성적 본성의 개별적 실체이다. 만약 하나님 안에 복수의 위격이 존재한다면 하나님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뿐이시다.

②하나님 안에는 인격으로서의 위격은 오직 하나이지만 관계에서는 네 위격들이 있다. 즉, 부성(父性)과 자성(子性)과 영기발(靈氣發)과 발출(發出)이다.

③수사(數詞)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을 규정한다. 하나님은 하나(-)인 것이 그의 본질이다. 그런데 수는 일성(-性)의 반복이다. 그러므로 모든 수사는 하나님 안에서 본질을 표시하며,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을 규정한다.

④ '위격'이라는 이 명칭이 세 위격들에 공통될 수는 없다. 위격이라는 명칭은 직접적으로 본질을 표시하지 않기에 세 위격에 공통되지 않는다.

-정리:최용우

## 예수께 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  
부서진 사람  
병 걸린 사람  
창녀 과부

예수는 그들을 보셨고  
그들을 만지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고쳐 주셨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  
차별하지 않으시고  
배척한 한 적이 없다.  
나도 예수께로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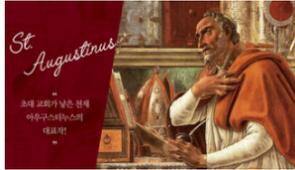


최용우 제9시집<일출봉에 햇벌이 쾅하오>

	비확산 일출봉 시인의 산중 연가(山中戀歌) <b>일출봉에 햇벌이 쾅하오</b> 최용우 지음 210쪽(울컬리) 13600원
---	---

	꽃같은 그대 있어 이 세상이 꽃 같습니다 <b>아내에게 바치는 시</b> 최용우 지음 216쪽(울컬리) 15000원
---	--

## 두 나라의 참된 기원-천사들의 순종과 반항



### 307. 언뜻 나쁘게 보이는 것에 대한 마니교 신자들의 오류

독초는 함부로 쓰면 해롭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쓰면 치료에 도움 되는 약으로 변한다.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음식과 햇빛 같은 것도 양과 때를 잘못 택하면 도리어 몸에 좋지 않다. 이처럼 하나님 섭리는 이런 사례들로 우리가 사물을 어리석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쓰면 이로 울지 신중히 찾아보라고 가르친다. 우리의 탐구 재능이 부족할 때에는 이용할 만한 가치가 아직 숨어있음을 믿어야 한다. 실제로 이제까지 우리들이 어렵게 발견한 많은 것들이 있다. 이용 가치가 숨어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겸손을 복돋우며 자만심을 깎아내리는데 도움이 된다. 어떤 자연 본성도 결코 나쁘지 않고, 악에는 선이 없기 때문이다.

### 308. 오리게네스의 오류

오리게네스와 그를 따르는 이들은 ‘우주 창조의 목적이 영혼들 저마다 짓값에 따라 감옥으로서 육체를 받았으며 죄가 가벼운 이는 높은 곳에 머무는 가벼운 육체가, 죄가 무거운 이는 낮은 곳에 머무는 무거운 육체가 주어진다.’고 한다. 만일 이 주장이 옳다면 마귀들이 무엇보다 악하므로 가장 낮고 무거운 신체를 받아야 한다. 악한 마귀가 그 공기와 같은 육체를 가졌고 인간이 제아무리 악하더라도 마귀의 사악함을 따를 수 없는데 사람은 죄를 짓기 전부터 흙으로 만든 육체를 받았다. 우리는 영혼의 가치가 그것이 가진 육체의 성질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

### 309. 창조의 삼위일체론적 근거

성부가 말씀을 낳으셨고,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만든 지혜이다. 그리고 독생자이며, 성부와 같이 하나뿐인 분이시며, 성부처럼 영원하시고 더할 나위 없이 선하시다. 또 성령은 성부의 영이자 성자의 영이시며, 두 분과 실체를 나란히 하고 마찬가지로 영원하시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 셋은 그 위격들의 고유함 때문에 삼위일체시며, 그 나눌 수 없는 신성으로 하나뿐인 하나님이다. -(계속)

## 찬송...(2)



### 8. 찬송 찬양 찬미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 하며 찬송하라”(엡5:19)고 합니다. 찬송(hymn)은 ‘프살모스’라고 하는데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 ‘찬양’은 ‘휘노스’라고 하는데, 이방 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방 종교에서 신이나 신화적인 인물들을 칭송하는 노래를 찬양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편지에 그들에게 익숙한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찬송에 관한 여러 단어들을 사전적으로 정리해 보면

- ①찬송(讚頌): 신성한 대상을 찬미하는 노래. ‘찬송하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린다는 의미입니다. 성가(聖歌)거룩한 노래 라고도 합니다.
- ②찬양(讚揚): 어떤 대상의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 종교에서는 신 또는 절대자를 높이는 뜻이며, 큰 업적일 이룬 사람을 기리며 공덕비를 세워 찬양하기도 합니다.
- ③찬미(讚美):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나 위대한 것 따위를 기리어 칭송함을 의미함. 어떤 장소나 물건, 사건을 찬미하기도 합니다.
- ④복음성가(Gospel music):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 부르는 대중적인 음악을 말합니다.
- ⑤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온갖 음악적인 기교를 다 부려서 만든

비교적 '현대에 불리는 기독교 음악'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계 5:13)돌리게 될 것입니다. 찬송은 인간의 감정과 감성을 자극하는 세상 노래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가사는 성경적이어야 하고 곡도 정숙하고 단정해야 하며 부를 때도 건성으로 대충 부르면 안 됩니다. (7875)

## 9. 찬송가 가사

찬송(hymn)은 가사 내용이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찬송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가의 가사는 '하나님의 창조사역, 은총, 구속, 십자가 보혈, 거룩하신 성품(공홀.자비.사랑.공의), 크신 능력과 권능,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심, 하나님의 절대주권' 같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찬송(hymn)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에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께 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찬송가182장) 같은 경우가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는 잘못된 가사입니다. '찬송합니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찬송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옆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찬송 받으실 분에게 '찬송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찬송(hymn)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불러야 합니다. 소풍 갈 때 버스 안에서, 운동회를 할 때 응원가로, 화목을 위한 모임 같은 곳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함부로 찬송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찬송을 부를 때는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께만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찬송(hymn)은 인간의 유희를 위해 부르면 안 됩니다. 계명성 천사장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자기가 영광 받는 노래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음악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우상숭배를 위한 도구로 음악을 사용했습니다. 음악(노래)은 인간 생활과 문화와 떼려야 뗄 수가 없는데, 술 취하여 흥청망청하는 곳이나 우상숭배를 하는 곳에는 반드시 음주카무가 있습니다. 찬송은 자기만족을 위해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7876)

## 10. 찬송가 곡조

찬송(hymn)은 곡조가 건전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찬송을 세상 노래처럼 인기 순위를 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상위 순위에 있는 곡들을 들어보면, 랩인지 락인지 헤비메탈인지 팝인지.. 템포가 빨라 도무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시끄럽고 난잡합니다. 가사는 분명 성경인 것 같은데 곡조는 철판을 굽는 것 같이 날이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아주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이런 곡조는 영혼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곡들이 인기 순위 상위에 줄줄이 들어가 있을까요?

찬송(hymn)의 곡조는 손에 잡히듯이 순수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과거부터 종교 음악에는 ‘엇박자’를 쓰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걸멋을 부리는 젊은 찬양 사역자들이 ‘엇박자’를 쓰기 시작하면서 찬송은 이제 대중이 따라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찬송은 원래 ‘서로 화답’(엡5:19)하는 노래입니다.

찬송(hymn)의 곡조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곡에 가사만 기독교식으로 바꾼 것 같은 곡은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혼미하게 합니다. 총알같이 빠른 템포에 실재 없이 증얼거리는 가사들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인간들의 달팽이관을 괴롭히려려고 만들었는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찬송(hymn)은 날이 갈수록 그 방향이 하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대중가요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찬송은 점점 곡조만 들어도 춤이 절로 나오고 몸이 저절로 흔들어지는 대중음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7877)

## 11. 소용없는 찬송

찬송(hymn)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찬송을 다 기뻐하고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사43:21)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른 찬송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기가막힌 태크닉과 기교를 부려서 찬송을 해도 하나님은 그 찬송을 받지 않으십니다.(암5:23)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찬송은 아무리 잘 불러도 소용없는 노래에 불과합니다.

찬송(hymn)은 무엇인가 받아내려거나 보상을 바라며 부르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찬송은 구원의 은총에 대해 감격과 감사로 불러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온 맘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감사하며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hymn)은 잘못된 태도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고 고발합니다.(말1:6-7)

찬송(hymn)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만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는 보기 드뭅니다.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소원을 구하는 찬양은 많은데, 회개와 통회와 자

복의 찬양은 인기가 없고 잘 부르지도 않습니다. (7878)

## 12. 찬송은 경건해야

찬송(hymn)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순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성경에 '음악'에 관련된 용어가 575회나 나오며, 사용한 악기도 13종류나 나오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규모의 찬양대를 조직한 이야기가 10여곳에 나옵니다. 특별히 레위족은 전적으로 '찬송'을 담당하고 인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성전의 봉헌식에는 예복을 입은 20만명의 찬양대가 동원되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찬송(hymn)은 출애굽기20:25절 말씀을 기준으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른다며 여러 장르의 음악을 마구잡이로 '찬송'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랩(Rap 힙합)은 그 의미가 '허튼소리, 소리질러, 질타하다, 세상을 비꼬다, 무가치한 것, 반항정신'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장르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속사포를 쏘듯 빠른 가사로 중얼거리거나 난잡한 복장은 엡5:19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헤비메탈이나 락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찬송(hymn)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가사대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찬송(hymn)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에 세상 음악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찬송(hymn)은 경건해야 합니다. 찬송(hymn)은 예배 분위기에 맞아야 합니다. 찬송(hymn)은 진실해야 합니다. 찬송(hymn)은 흠이 없고 온전해야 합니다. 찬송(hymn)은 감사의 찬양이어야 합니다. 찬송(hymn)은 최고, 최상의 찬양이어야 합니다. 찬송(hymn)은 영적이어야 합니다. (7879)

## 13. 찬송과 루시퍼

찬송(hymn)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루시퍼 천사에게 최고 수준의 음악적인 재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계5:11)인데, 그중에 하나님을 보좌하고 에덴동산의 입구를 지키는 천사의 가장 우두머리가 루시퍼(Lucifer)이며 그래서 '천사장'입니다.(겔28:14,16 겔28:13) 루시퍼는 음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찬송(hymn)은 하나님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만 하고 찬양을 받을 수 없다는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의 부하 천사들

에게 자기를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만 받아야 하는 찬송을 가로챌 루시퍼는 추종자들과 함께 지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사14:12-16) 루시퍼의 목적은 단 하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찬양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음악을 장악하여 세상 가수들을 뒤에서 조종합니다. 그래서 세상 음악은 루시퍼를 찬양하는 인본주의 적인 노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래 딱 두 가지 주제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음악'과 관련된 피조물로 루시퍼, 유발, 다윗이 나옵니다. 아담의 7대손인 유발은 창4:21에 수금과 통소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즉, 유발은 음악인들의 시조입니다. 그렇지만 카인의 후손이라 그 음악은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찬송(hymn)의 시조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찬양을 만들었으며, 악기를 사용하였고 음악 지도자 288인을 세우고 4000명을 동원한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찬송 영역은 다윗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7880)

## 14. 찬송과 악기

찬송(hymn)은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며 부를 때 더욱 은혜와 감동을 줍니다. 성경에 언급된 악기만도 13종류나 되는데, 기타 피아노 드럼 전자기타 같은 것은 당연히 안 나옵니다.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그런 악기들이 없었을 때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아무 악기든 다 사용해도 될까요?

찬송(hymn)은 선율이 있는 악기를 사용해서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은 '도레미파솔라시도' 7음과 반음인 #, b를 사용하여 총 12음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악기의 음을 내면 음파가 발생하는데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그란 물결이 이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음파는 측정할 수 있는 '고른음'과 측정할 수 없는 '시끄러운 음'(noise)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음은 음정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선율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요함' 가운데 계시는 정적인 분이 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선율'을 타신다는 뜻입니다. 타악기는 박자를 맞추는 용도이지 연주용은 아닙니다.

찬송(hymn)에 타악기 사용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타악기 음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음을 이루는 음파의 진행이 불규칙하기 때문입니다. 타악기로는 레가토나 마에스토소와 같은 분위기를 못 만들고 그저 리듬으로 인간의 심장 파장에 동조하여 사람을 흥분시키거나 마취시키는 역할만 합니다.

찬송(hymn)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엡5:19) 즉 '가사'가 있어야 찬송입니다. 악기만으로 찬송을 부를 수 없습니다. 악기는 음과 선율만 있을 뿐 가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악기 사용은 많은 고민과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 (7881)

©최용우



전하 ~ 대역죄인을 죽여 주시옵소서~ (사진:최용우)

## 까르페 디엠

등산 중에 우연히 찍힌 내 사진 한장을 보고 무슨 사극에 나오는 대역죄인인 줄 알았다. 산행 중에 잠시 쉬면서 너무 더워 모자를 벗고 땀을 닦으면서 얼떨결에 찍힌 사진인데... 얼른 모자 써라.(이발할 때가 너무 지났군)

어쨌든 대역죄인 같은 이 모습도 나의 모습이니 내가 사랑할 수 밖에...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앞모습만 그것도 거울을 통해 볼 수 있을 뿐, 뒷모습이나 전체적인 모습을 볼 기회가 별로 없다. 사진을 찍는 사람도 가장 좋은 모습만 찍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은 진짜 자신의 모습과 직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carpe diem! 까르페 디엠!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 순간을 사랑하고, 이 순간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

이 순간은 내 생애에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이기에!

## 사람 사는 세상

도서관에 책 반납하고 다른 책 두 권 빌려 나오면서 그냥 갈 수 없어 세종호수공원 한 바퀴 돌았다.

‘바람의 언덕’이라는 장소가 있다. 다른 이름으로는 ‘노무현 공원’이라고도 부른다. 밀짚모자를 쓰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대통령의 뒤를

사람들이 따라가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저 사람들은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을 한 명씩 상징하기에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다.

‘사람 사는 세상’은 몇몇 사람들만 잘사는 세상이 아니라, 각계 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다.

세종시의 첫삽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떴었고 계획(원안)대로라면 지금 세종시는 완성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다른 대통령이 계획(수정안)을 뒤죽박죽 섞어버려서 반쪽짜리가 되어버렸고 세종시는 지금도 여전히 ‘공사중’이다.



## 주먹 팍

파출소 뒤에 빈집이 한 채 있다.

동네 입구에 있는 집이라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가며 나팔꽃이 여기저기에서 월담하여 담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나팔꽃은 아침꽃이다.

새벽 3~4시경에 꽃봉오리가 벌어지기 시작해서 오전 9시경에 활짝 피었다가 점심 때가 되기도 전에 꽃잎을 오므리고 떨어져 버린다. 나팔꽃은 신기하게도 어둠의 시간(밤)을 겪지 않으면 꽃을 피우지 못한다고 한다.

나팔꽃은 모닝글로리(Morning glory)이다. 이른 아침에 피는 환희 기쁨, 영광, 찬미의 꽃인데, 서구권에서는 아침에 남자들의 힘이 팽팽 일어서는 발기를 ‘모닝글로리’라고 한다. 음... 나팔꽃이 주먹을 팍 쥐고 하루를 마감하고 있다.

인타깝게도 나팔꽃은 피는 시간이 짧고 금방 시든다. 음?..



## 아름다운 지구

파출소 뒤에 빈집이 한 채 있다. 담장 위로 나팔꽃 줄기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 아침 햇살이 쨍하니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듯 나팔꽃을 비추고 있다. 이렇게 광(光)이 풍부한 날은 아무렇게나 찍어도 사진이 잘 나온다.



마침 집에 '커피 원두'가 떨어져서 편의점에 가 뜨거운 커피 한잔 텀블러에 내려오는 중이다. 편의점에 있는 종이컵을 쓰면 1500원이고 텀블러를 가지고 가면 1300원이다. 천천히 걸어가고 오면서 주변을 살펴본다. 지구는 참 아름답다.

이 경이로운 어머니 지구를 밟고서 마음을 모아 한걸음 한걸음 걸으며 눈을 뜨니 사진으로 담아 둘 찰라의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다. 사진을 30장도 더 찍었다. 길가에 떨어진 붉은 감조차도 특별하게 보이는 날이다.

## 방축천 고양이

운동을 하며 방축천(서울의 청계천을 본따 만든 세종시의 샛강)을 걷는데 언덕에서 커다란 턱시도 고양이가 슬금슬금 계단을 내려오더니 내 앞을 스 지나간다.

가만히 보니 임신을 해서 배가 늘어져 있다.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들이대도 반응이 없다.



아이고, 이렇게 더운 여름에 임신한 몸으로 어찌 견뎌냈을까... 그루밍을 잘 한 것을 보니 어디선가 밥을 챙겨주는 것 같기는 하다.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을 보니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 사는 길고양이인 것 같다.

사방이 도로와 건물로 막힌 도시는 인간들의 편리 위주로 만들어져 있기에 야생 동물들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은 아니다. 도시의 고양이는 태어날 때부터 생존을 위한 전쟁을 치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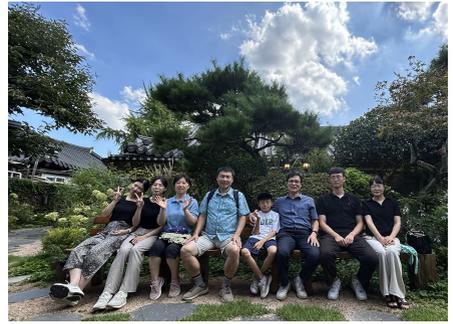
사람들이 야생 동물들과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 살았으면 좋겠다.

## 전주한옥마을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광주의 아우 목사 가족과 세종의 우리 가족이 딱 중간인 전주에서 만나 맛있는 점심을 먹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깔끔하게 끝내기로 했다.

그리하여 추석 첫날 서울에 사는 아이들은 버스를 타고 전주로 바로 내려갔고, 우리는 밀리는 고속도로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짜증을 냈다가 현실로 돌아왔다가 이성을 잃고 오락가락... 평소 1시간 거리를 3시간 30분 걸려 약속장소에 가장 늦게 도착했다.

‘양반가’라는 한정식 식당에서 점심을 잘 먹고, ‘꽃가마’ 카페에서 팔빙수 먹고, 즉석 사진도 찍고, 족욕도 하고, ‘난장’이라는 추억의 박물관을 한 바퀴 돌아보고, 냉면으로 저녁을 먹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올해 추석 명절 끝!



## 왕의 밥상

“올해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할거야~” 라고 하면서도 이것저것 명절 음식을 하느라 아내의 스트레스가 컸다.

그래서 올해는 진짜 음식을 안(똥)하도록 집에서 멀리 떨어진 밖에서 추석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차려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우리도 놀자~.

전주한옥마을 여행하면서 ‘왕의 밥상’ 사진이 때문에 딱 걸려있는 음식점을 보고 ‘나중에 우리도 한번 먹어보자’ 했었던 기억이 났다. 지금이 바로 그 나중이다~!!! 전화로 일정을 잡았다. 그리고 드디어 눈앞에 펼쳐진 엄청나고 화려한 왕의 밥상~ 을 영접했다.

음식이 빠짐없이 다 맛있고 정갈했다. 여자들은 ‘차려주는 밥상’에 감격을 했고, 남자들도 20가지가 넘는 다양한 음식을 알뜰하게 먹느라 정신이 없었다. 주인장도 너무 친절하여 가족 단체 사진도 잘 찍어주시고 좋은 덕담도 해 주셨다.

명절인데도 쉬지도 않고 영업을 하는 분들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역대급으로 만족스러운 추석 명절을 잘 보냈다.



## 살금살금

쑥티고개 올라가는 가파른 골목 끝에서 두 번째 집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골목길을 내려가신다.

지팡이를 짚고 마치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운 아기처럼 살금살금 조심조심 걸어가신다. 바람만 불어도 쓰러지실 것 같아 너무나도 위태하고 너무나도 가볍다.

차도 저 걸음에 맞추어 아주아주아주아주 천천히 따라간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비키라고 빵빵거리거나 할아버지를 앞서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한때는 에너지가 뿔어져 나와 무서울 것 없이 자신만만했던 몸에서 점점 힘이 빠지고 이제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으면 눕고, 그렇게 누워서 못 일어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한다. 인생에는 안타깝게도 리셋(reset)이 없다.



## 우리 집 부자 순위

서울 사는 딸들이 사는 집 연장 계약을 하면서 지금 살고있는 건물의 가격이 5억 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 3층에 주인이 살고 1-2층은 세를 주고 있는 건물이다.

말이 나온 김에 물어보았다.

“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인 것 같아? 자기가 갖고 싶은 금액을 말해봐. 나는 한 100억 정도 있어야 부자이고 그 정도 갖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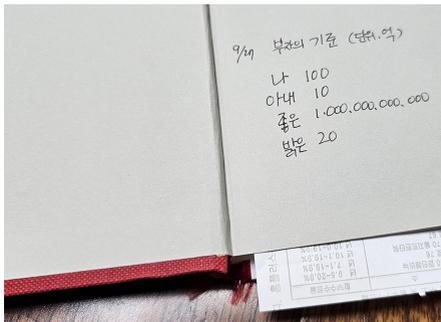
아내는 “10억 있으면 우리 집 하나 사고 나머지로 큰딸 카페 하나 차려주고 싶어요.” 아내는 매우 현실적이다.

작딸은 “나는 한 20억 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큰딸은 “나는 한 1조는 있어야 돼.”

와따~ “1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은 잡히냐?” 큰딸이 가장 배포가 큰 부자다.

나는 내 가계부 맨 앞장에 ‘나 100, 아내 10, 작은딸 20, 큰딸 1,000,000,000,000 라고 써 놓았다. ©최용우



#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 ▲제670회 병마산(162m오승)2024.9.4

## ▲제671회 비학산 2024.9.13.맨발

## ▲제672회 속리산 천왕봉(1058m)

속리산은 '문장대'를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최고봉인 '천왕봉'이 100대 명산으로 지정되면서 천왕봉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오늘은 힘든 코스인 '도화리'에서 산에 올랐다. 절 마당에 차를 주차한 다음, 약 2시간 오르고 1시간 내려왔다. 명절인데도 산을 타는 사람들이 많았다. 등산을 마치고 나서 거의 쓰러질뻔했다. 입에서 쓴내가 날 정도로 힘들었다. 이렇게 되게 산행을 한 것이 얼마만이나. 2024.9.18

## ▲제673회 우산봉(573m대전)

안산산성에서부터 왕복 5km를 트랭글 어플로 재보니 1시간 20분 걸렸다. 가시 덤불을 헤치며 올랐던 산인데, 길을 얼마나 잘 다듬어 놨는지 거칠 것이 없었다. 산길을 잘 관리하는 분들에게 고맙다. '해 떨어지기 전에는 내려와야 한다'는 마음에 오랜만에 무장 공비가 되어 지축을 흔들며 우다다다... 땀뻘들이 깜짝 놀라 도망을 쳤다.

우산봉에는 정상석이 서 있었는데, 어찌된 셈인지 사라지고 없었다. 주변에 쓰러져 있나 찾아보니 없었다. 반반한 돌 하나 주워서 세우고 거기에 매직으로 '우산봉'이라고 써서 돌을 세웠다. 누군가 정상석을 열른 세우기를... 2024.9.28.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 ①서리맞은 상강국화 그향기가 더욱진해

〈한밤중에 된서리가 팔방에 두루 내리니, 숙연히 천지가 한번 깨끗해지네.  
 바라보는 가운데 점점 산 모양이 파리해 보이고,  
 구름 끝에 처음 놀란 기러기가 나란히 가로질러 가네.  
 시냇가의 쇠잔한 버들은 앞에 병이 들어 시드는데,  
 울타리 아래에 이슬이 내려 찬 꽃부리가 빛나네.  
 도리어 근심이 되는 것은 노포(老圃, 농사 일에 경험이 많은 농부)가  
 가을이 다 가면, 때로 서풍을 향해 깨진 술잔을 씻는 것이라네.〉  
 - 권문해(權文海)의 《초간선생문집(草澗先生文集)》에서.



## ②표지사진 이야기

등산 동행들과 함께 함양 ‘황석산(黃石山)’에 올랐다. 황석산은 백두대간 줄기에서 뻗어 내린 4개의 산(기백, 금원, 거망, 황석)가운데 가장 끝자락에 흡사 칼을 세운 듯 1190m나 솟구친 높은 봉우리의 산이다. 호기심 많은 일행들이 복원중인 산성을 따라갔다가 갑자기 길이 없어져 버려서 등산로로 복귀하느라 고생을 했다. 황석산은 ‘정유재란’ 당시 왜군에게 마지막까지 항거하다가 부녀자들이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자 천길 절벽에서 몸을 날려 지금도 황석산 북쪽 바위 벼랑이 핏빛으로 물들어 있다는 슬픈 산이다.

## ③도서출판 소식

〈신간〉만사록 1권-생각 (만사록 시리즈1) /304쪽 15000원 -2024.10.11.일 출간  
 85.마가-예수어록 (어록 시리즈2) /324쪽 15000원 -2024.8.29.출간  
 84.일상의 기적 (시 시리즈12) /컬러210쪽 15000원-2024.7.30. 출간  
 83.오두막 일기 (일기 시리즈15) /컬러396쪽 24000원-2024.6.28 출간  
 82.성동-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햇별23) /318쪽 14000원-2024.5.30 출간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80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살림 드러내기 -2024.9월 재정결산

2024년 9월(1-30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강경희 김광현 김상식 김준경 김중곤 박근식 박기순 박승현 박신혜 양은희 양희창  
오창근 옥치오 이인숙 이재익 이진우 임대근 장기갑 정효숙 조정옥 지경희 최상복  
한주환 새벽기도 선한열매교회 안디옥교회장사교회 함안중앙교회  
28분이 1,700,000원을 후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버 이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사역 -인터넷신문 햇별같은이야기 2024.10.21일까지 7933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후보자료파일, 전도자료 발행

③출판사역 -그동안 86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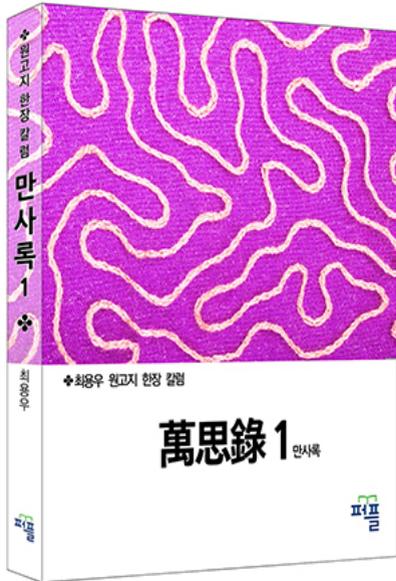
④기도사역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독거인, 문서2, 인터넷, 북방선교2, 선교사, 난민)

⑥피정사역(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몇 년 동안 작은 흙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로 피정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한번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기독교목회사역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피정사역을 위한 특별 후원헌금 계좌 /우체국 100347-02-096053(이인숙))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새로 나온 책

최용우 원고지 한장 칼럼

## 萬思錄 1 만사록

생각, 열매, 선물, 행복 네가지 주제로 쓴 1000편의 포도알 같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오직 사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생각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최용우 304쪽 15000원 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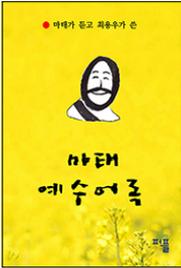
나는 평생 문서를 편집하면서 살았는데, 원고가 분량에 딱 맞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페이지에 빈 여백이 남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그 여백에 맞는 길이의 ‘유머’나 ‘토막글’을 써서 넣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한 숨에 읽을 수 있는 토막글을 더 기억하고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아예 ‘200자 원고지 한 장’ 길이의 토막글만 쓴 페이지를 따로 만들기도 했다.

이후 수도원에서 영성수련을 하며 내 마음속에는 정말로 ‘5만가지 생각’이라는 것이 ‘분심(생각의 가루)’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기도를 하면 마치 밤하늘의 별 가루처럼 마음속 가득 생각들이 둥둥 떠다녔다.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잡아서 마음에 착상을 시키면 그것이 한편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었다. 마치 3억개의 정자중에 하나가 난자를 만나면 한 사람이 되어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신비로움이었다.

어느 날 청탁받은 글 한 편을 쓰려는데 막막했다. 그래서 이전에 무심코 써 놓은 토막글 하나를 뽑아 엇가락 늘리듯 늘렸더니 훌륭한 글 한 편이 써졌다. 갑자기 내 마음속에 있는 5만가지 생각들을 한 1만개쯤 잡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만 가지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만 가지 생각 즉, 만사록(萬思錄)이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최용우 저서



## 마태 예수어록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에서 빨간색으로 인쇄된 예수님의 말씀 구절만 모두 뽑아 아침마다 한 절씩 묵상하고 주신 은혜와 감동과 능력을 받아 적어 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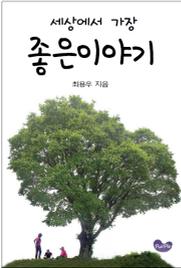
28,000원 692쪽 펴플



## 마가 예수어록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에서 빨간색으로 인쇄된 예수님의 말씀 구절만 모두 뽑아 아침마다 한 절씩 묵상하고 주신 은혜와 감동과 능력을 받아 적어 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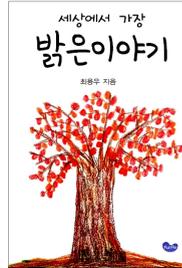
15,000원 324쪽 펴플



##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야기

매일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국의 14만 독자들에게 매일로 발송하였던 햇별같은이야기 아침편지 1호-1019호까지 4년 분량 1019편의 좋은 글을 읽기 좋게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24,000원 722쪽 펴플



## 세상에서 가장 밝은 이야기

매일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국의 14만 독자들에게 매일로 발송하였던 햇별같은이야기 아침편지 1020호-1979호까지 5년분 960편 밝은 글을 읽기 좋게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23,900원 720쪽 펴플



## 새벽우물

얼어붙은 내 영혼 내면의 바다를 깨부수는 한 자루 도끼와 같은 책! 총총히 맑은 물 채운 새벽우물! 햇별 1980호부터 3501호 까지 1422편 단행본 5권 분량을 한권으로 크게 묶었습니다.

28,700원 878쪽 펴플



## 플러스 예화

두란노서원에서 매일 펴내는 큐티 묵상집 월간<생명의삶+>(묵상과적용)코너에 17개 월 동안 썼던 예화 452편을 모은 크리스천 리더들을 위한 고품격 inside 예화집입니다.

17,000원 490쪽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햇별같은이야기 <https://cyw.pe.kr>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징) <http://cyw.co.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속터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69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